

자료제공 : 2024. 2. 5.(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담당관	김 지 혜	2133-6185
브랜드기획팀장	김 현 정	2133-6187
담당자	박 인 근	2133-6191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5매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 단 4일만에 약 15,000명 방문

- 서울사람들의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성수동에 꾸며진 굿즈 팝업스토어 성황리에 종료
- 평일인 2.1(목) 시범 오픈 첫날부터 인파 몰려... 대기행렬 늘어, 언제 입장 가능하냐 질문도
- 인스타그램머블한 포토존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온라인 게시물 3,200개 이상 올라와
- 첫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 초도물량 약 5,300봉 전량 소진...시민 관심 실감

- 서울시가 서울의 매력과 힙함을 담은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팝업 (Pop-up)의 성지 성수에서 2월 1일(목)부터 2월 4일(일)까지 오픈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4,000여명, 총 15,000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이번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전시는 물론 서울 사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Seoul Night, Led전시 및 픽토그램 서울 디저트 등),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Seoulite, MZ맞춤 포토존 및 체험이벤트 등)로 꾸몄다. 이외에도 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 시는 팝업스토어 시범오픈 첫날이 평일인 2.1(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첫날부터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4일 행사 기간 내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단위 시민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여 행사를 즐기고 경험하고 갔다.
- 강동구에서 방문하였다는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줄이 길어서 깜짝 놀랐다, 오늘 입장할 수는 있는거냐?”라며 행사 스태프에 문의하였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박모씨는 “공공에서 하는 팝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다.”며 “라면 시식도 하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 이에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했다.
- 시는 이번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입소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약3,200개 이상 업로드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고 시는 파악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 시와 공무원이 협업하여 처음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은 시식 및 판매 등을 위해 준비한 초도물량 약 5,300봉이 전량 소진 및 판매되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연스레 입증 하였다.
 - 서울라면의 맛에 대한 시민평가도 이어졌다. 국물라면은 로스팅한 고추와 마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짜장라면은 로스팅한 춘장의 진한 풍미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 한편, 시 직원 대상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서울라면 200세트도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량 판매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시민들이 주인공인 팝업스토어 행사에 혹시 방해가 될까 편한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현장 사진 1부. 끝.



